양시론과 양비론

심의겸은 왕실의 외척 출신으로 선(善)으로 향한 마음이 조금 있었고, 계해년(1563, 명종18) 연간에 이량(李樑)[1]이 사림을 막 해치려고 할 때 그가 사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그 사람됨을 인정하였으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선배 사류(士類)[2]였습니다.

김효원은 소싯적에 비록 조심이 없었지만 뒤에 행실을 고쳐 선하게 되었습니다. 관직에 나선 뒤에는 자신을 단속하기를 청고(淸苦)[3]하게 하고 강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망 있는

1 이량(李樑): 1519~1582. 명종 때의 왕족이자 척신으로서 심의겸의 외숙이다. 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해 그를 등용하였으나 지나친 권력욕으로 사림들을 해치려고 하였는데, 심의겸이 그것을 막았다.

2 사류(士類): 사림

3 청고(淸苦): 맑은 것이 괴로울 정도로 힘씀. 곧 행동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맑게 함

선비들을 즐거이 끌어들였으므로 대부분의 사림이 그를 추앙하여 존중하였으니, 김효원을 인정해 준 사람들은 후배 사류였습니다.

선배와 후배 모두 사류입니다. 만약 서로를 의심하거나 사이가 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써 왕실을 도왔다면 또한 좋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심의겸이 김효원의 소싯적의 잘못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청직(淸職)[4]에 선발될 물망에 오른 것을 방해하다가, 김효원의 명성이 날로 왕성해지자 마침내 이것을 누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원도 벼슬길에 오른 뒤에 또 심의겸의 잘못을 논의하여 그는 어리석고 기질이 거칠어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대체로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한 것이 애초에 마음에 품을 만한 묵은 원한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고집하여 변통(變通)[5]할 줄을 모른 탓이었습니다. 김효원이 심의겸의 결점을 드러낸 것도 반드시 그 사적인 감정을 되갚고자 한 것이 아니고 마침 그 소견이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이에 이것을 방관하는 자들이 그 실정을 깊이 알아볼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다고 널리 떠들었고, 더군다나 불평을 가진 무리가 양쪽으로 얽어매 점점 뚜렷하게 분당(分黨)의 조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4 청직(淸職): 여기서는 이조전랑(吏曹詮郞)의 자리를 두고 말함

5 변통(變通): 여기서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일을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뜻으로 쓰임

해설

이 글은 동서붕당의 당사자였던 심의겸과 김효원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다. 앞부분은 두 사람의 장점을 말하였고 뒷부분은 그들의 미숙한 점을 말하였다. 당시 선생과 대립하는 입장에 선 동인들은 이것이 각각 양시론(兩是論)과 양비론(兩非論)이라 비판한다.

요점은 심의겸이 과거 왕족이자 척신으로 명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이량으로부터 현재의 나이든 선비들을 보호해준 선행이 있어 그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김효원은 비록 젊었을 때 척신 윤원형의 집에 드나든 잘못이 있지만, 명망이 있어 젊은 선비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두 사람의 장점을 말했는데 이것이 양시론이다. 이것은 붕당의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좋은 점을 들어 조정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이 점은 나중에 동인들로부터 둘 다 옳다는 '양시론'이라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그리고 붕당이 일어나게 된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심의겸은 김효원의 젊을 때의 일로 이조전랑에 오르는 것을 방해했고, 김효원도 심의겸을 잘못을 들어 비난했는데, 둘 다 나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심의겸은 변통할 줄 모르고 김효원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의견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틈을 타 불평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얽어매 분당의 조짐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점은 붕당이 더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과격하지 않게 에둘러 그들의 단점을 지적한 말이지만, 사실상 둘 다 그르다는 '양비론'의 논

리이다. 이 또한 이 상소를 쓰기 전에도 그가 선조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사실 선생은 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동서붕당을 완화 또는 조정해보자는 노력이 있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선생이 부제학이었던 1575년 당시 심효원을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김효원을 함경도의 부령부사(富寧府使)로 전직시켜 당쟁을 조정하려 했으나 이미 뿌리박힌 양당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 일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이이(李珥)가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을 보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덕을 닦는 선비로서 흑백과 선악이 서로 대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겨 서로 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세의 풍속이 시끄러워 약간의 틈이 벌어진 것뿐인데, 근거 없는 뜬소문이 두 사람을 이간질해 조정이 조용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을 모두 외직(外職: 지방 관리)으로 내보내어 근거 없는 논쟁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감께서 경연(經筵) 자리에서 두 사람을 외직으로 보내는 이유를 주상께 말씀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생의 제안에 따라 두 사람을 먼 외직으로 내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겸은 한양에 가까운 개성이지만 김효원은 먼 함경도였다. 이에 김효원을 지지한 동인들의 불만은 커졌고 그 불똥은 선생에게 튀었다. 선생이 서인인 심의겸을 두둔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선생은 그런 점을 알고 변방이 아닌 곳으로 김효원의 임지

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한양과 거리가 먼 강원도 삼척이었다.

선생의 의도와 달리 동인들의 불만과 선생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효원의 임지를 삼척으로 바꾼 것에는 그런 동인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굳이 그곳으로 보냈던 일은 선조의 의도된 계략으로 보인다. 동인들이 선생을 나쁘게 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왕조실록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선조는 선생을 크게 믿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선생의 이런 조정안이 그의 의도와 별개로 김효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동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또 당쟁이 격화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무튼 선생의 이런 견해는 당쟁을 조정해보자는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조정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되레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선생의 이런 양시론 · 양비론의 태도에 대한 반대쪽 인사들은 "모호하게 둘 다 옳다 하여 시비가 명백하지 않으니, 천하에 어찌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것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선생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에 시비를 다룸에 있어 둘 다 옳은 것도 있는 것이니 무왕(武王)이 주(紂)를 토벌할 때 백이(伯夷)가 말을 잡고 간(諫)한 것은 둘 다 옳은 것이요, 또 둘 다 그른 것도 있는 것이니 전국(戰國) 시대에 제후(諸侯)들이 서로 싸운 것은 둘 다 그른 것입니다."

말인즉 무왕은 은나라를 토벌하러 간 사람이고 백이는 그것을 말린 사람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무왕이나 은나라에 절개를 지킨 백이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뜯어 먹으며 죽은 것 둘 다 옳다는 말이다. 전국시대 제후들은 받들어야 하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를 무시하고 각자 제후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둘 다 잘못이라는 견해이다. 유학자들이 믿고 있는 사실에 따라 양비 · 양시론이 논리상 하자가 전혀 없는 말이다.

그런 노력은 요즘에도 정치적 사안을 두고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양시론과 양비론 그 자체는 비판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그것은 대부분 양쪽의 눈치를 보고 욕을 먹지 않으려고 기회주의적인 태도에서 펼치기도 하지만, 선생의 경우는 어떤 기회주의나 눈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비판 가운데 특이한 점에는 같은 동인들의 태도와 다소 다른 김우옹(金宇顒)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다. 비록 두 사람을 군자나 소인이라 규정해서는 안 되지만,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점은 심의겸과 김효원 두 사람에 대한 군자 소인의 논의가 옳다고 여긴 다른 선배들의 생각과 분명히 구별된다.

그런데 김우옹의 "만약 정말로 그가 소인이라면 조정될 리가 없고, 그런데도 만약 조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는 바로 한 세상을 농락하려는 소인이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그'는 심효원을 가리키는 것 같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생이다. '만약'이라는 단서

를 달았지만 소인은 절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조정의 성공과 실패 여하에 따라 군자 소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당시의 시점에서 사실상의 조정의 실패는 곧 선생의 사태 인식과 해결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선생의 말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자 붕당조정 실패를 책임지우는 말이기도 하다. 선생의 붕당조정의 노력이 당시 동인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前後輩는 皆是士類也라. 若使不相疑阻하고 同心戳力하여
전 후 배 개 시 사 류 야 약 사 불 상 의 조 동 심 착 력

以奬王室하면 則不亦善乎아?
이 장 왕 실 즉 불 역 선 호

於是傍觀者가 不能深究其實하고 而泛說二人交惡하니라.
어 시 방 관 자 불 능 심 구 기 실 이 범 설 이 인 교 오

» 어휘 풀이

前後輩: 선배와 후배/皆: 모두/是: 이/士類: 선비의 무리/也: 어조사/若使: 만약 ~한다면/不: 아니하다/相: 서로/疑: 의심하다/阻: 사이가 멀다, 의심하다/同心: 같은 마음, 한 마음/戳: 찌르다/力: 힘/以: ~으로써/奬: 돕다/王室: 왕실. 조정/則: ~한(했)다면/亦: 또한/善: 좋다/乎: 어조사/於: ~에/傍觀者: 방관하는 사람/能: 능하다, ~할 수 있다/深: 깊다/究: 궁구하다, 연구하다, 헤아리다/其: 그/實: 실상, 실질/而: 어조사/泛說: 널리 말하다/二: 두/人: 사람/交惡: 서로 미워하다

» 문장 구조

1.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 중간에 있는 문장은 가정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2. '前後輩皆是士類也'는 주어+동사+주역보어의 형태인 2형식의 문장이다. 주어는 前後輩이고 주격보어는 士類이며 '~이다'라는 동사역할을 하는 것이 也이다. 皆는 부사이며 是는 지시대명사이다. 前後輩는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데 前後가 輩를 꾸며주고 있고, 士類는 복합명사로서 士가 類를 제한하고 있다.
3. '若使不相疑阻, 同心戳力, 以奬王室, 則不亦善乎?'은 가정문인 조건절과 주절이 포함된 의문문이다. '不亦~乎'는 '또한 ~하지 않은가?'를 뜻하는 의문문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전체 구조는 '若使 ~則不亦~乎'의 '만약 ~한다면 또한 ~하지 않는가?'의 형태이다.
4. '不相疑阻, 同心戳力, 以奬王室'에서 모두 前後輩라는 주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되었고, '不相疑阻, 同心戳力'은 주어+동사의 1형식의 문장이며 '以奬王室'은 3형식의 문장이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疑阻 · 戳力이고 奬은 王室를 갖는 타동사이다. 不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 相은 부사, 同心을 부사구이고, 以는 '~으로써, ~을 따라서'의 뜻을 나타내며 앞의 '不相疑阻, 同心戳力'의 내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써 왕실을 돕는다'는 뜻이다.
5. '於是傍觀者, 不能深究其實, 而泛說二人交惡'의 전체 주어는 傍觀者로서 명사구이다. 者는 앞의 동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만들었다. 동사는 각각 究와 說로서 그것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實과 二人交惡인데 후자는 명사구이다. 而는 '~하고'를 뜻하는 접속사이며 於是는 부사구, 其는 앞 문장의 내용을 받는 대명사, 深과 泛은 부사로, 不能은 불가능의 조동사로 쓰였다.

» 해석

선배와 후배 모두 사류입니다. 만약 서로를 의심하거나 사이가 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써 왕실을 도왔다면 또한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이것을 방관하는 자들이 그 실정을 깊이 알아볼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다고 널리 떠들었습니다.